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어났다. 아마도 구속자 수로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많았을 것이다. 더불어 수배자들도 대단히 늘어났다. 그러나 많은 구속자와 수배자들도 긴조9호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되고 수배가 떨어지고 나서야 알게 됨에 따라 서로를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독재정권의 감시체제 하에 놓여 있었기에 보안유지나 비밀유지가 몸에 배여 스스로가 드러내기를 싫어해 더욱 정보가 단절되었다. 이때문에 긴조9호 세대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잘 알지 못하고 지냈다. 이런 관성은 독재정권의 감시체제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서로가 나뉘어져 고립된 채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끼리만 한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보다 민주화되고 정보의 가치가 더욱 중요시되어 자기를 알리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는 커다란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우리가 다 같이 극복해야 할 세대적 아픔이다.

## '77년 3월 판악의 꽃샘추위



김 천 우\_ 서울대 법학과 74학번, SK글로벌주 상무, 제주4.3연구소 이사,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회원, 강창일 국회의원 정책보좌관(현)

1977년 3월 그 해도 2005년 올해 만큼 유난히 추웠다.

꽃샘추위가 그리 심한 이유는 봄꽃이 더욱 이쁘고 향기가 진할 수밖에 없음을 예고하기 위해서였다. 디-데이로 잡아놓은 3월 24일엔 눈발까지 날렸다. 이심전심 우리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3월 28일로 디-데이를 연기하고 사당동에서 막걸리 부으며 쾌청한 날씨를 청하였다. 천우신조를 믿기로 하고.

1977년 3월 28일 디-데이.

인문관, 사회관이 몰려 있는 5동 앞의 도서관 가는 길 통로에 좌판을 벌이고 각자 조직 후배에게 동료들과 학우들을 모이게 하였다. 내가 속한 '이카'에서는 연성만, 김철수가 동원되었다. 당시에는 비상학생총회가 있다는 말로 학우들을 동원하였다. 선언문을 뿌리고 한 줄이나 읽었을까? 학생 수만큼이나 많은 형사가 달려들고 혁띠를 잡으니 오도가도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그래도 후배 도움으로 양춘승인 잠수를 하였다. 중정 파견 아무개는 색안경 너머로 미소짓는다. 남산으로 가자꾸나 알몸으로 버티보자꾸나.

일제 강점기 3.1 운동 이후의 문민화와 유사한 정책 변화인지 남산 아니고 관악경찰서로 향하네. 살았다 싶었다. 보안사에 친구 이선근 덕에 끌려가 맞고, 고문 소리 듣고, 친구의 비명 소리 들던 기억에 비하면 관악경찰서는 천국이나 다름없었다. 내가 맞는 것보다 옆방에서 고문에 울부짖는 소리가 더욱 소름 끼치던 시절이었다.

어차피 셋이서 짜놓은 시나리오 대로 불고 또 불고 자술서 쓰고 또 쓰고, 진술조서도 꾸며진다. 자술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보호다. 그때 당시에는 서클이 언더화된 상태이고 패밀리라고도 불렸다.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김천우, 박찬우, 양춘승 개인이 어찌다 1977년 3월 초에 만나서 의기투합하고 데모를 주동했다고 부는 것이다. 오로지 셋이서만 주동했다고 하면서 다른 아무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는 것이다. 데모 준비도 셋이서, 데모도 셋이서, 현장 학생 동원도 오로지 셋이서만 했다고 불어야 각자가 속한 조직이 온전히 보전되고 다음 거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시 학도호국단이 길으로 드러난 학생회였다. 학교가, 유신 정부가 인정하는 학도호국단 외의 학생회 역할은 지하화된 서클들이 맡고 있었다. 한사회, 농법회, 농경회, 이경회, 국경회, 경법회, 아카데미 제일교회, 이와이씨 야학모임, 가면극회 등 서클은 많았다. 각각 독자적으로 교육하고 실천하고 데모도 하였다. 성향에 따라서 사회운동, 학생운동, 농민운동, 노동운동, 문화운동 등 주력 분야는 달라도 유신타도 긴조철폐에는 진한 공감대가 있었기에 1975년 5·22의 큰 시위 이후 길으로는 조용한 학원 내에서 안으로는 서클들이 바빠 움직였다.

소위 서클 연합회가 착실히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다. 73, 74학번 중 이론이나 실천 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박석운, 김창우였다. 이른바 1976년 여름 송추 모임! 서클연합회 주요 멤버 수련회였다. 도원결의라고도 불렸다. 유비, 관우, 장비가, 난 시는 달라도 죽는 시간은 맞추자는 도원결의!

3인이 아니라 더 큰 운동을 위해 7인이 모여 도원결의를 했다. 박석운, 이범영, 백계문, 그리고 양춘승, 김창우, 박찬우, 김천우 일곱이 만났다. 유신타도의 무거운 짐이 우리들 어깨에 있는 것이라고 믿었다. 조용한 관악캠퍼스에 불을 놓자고, 들불은 번질 것임을 확신했다. 유신이 타도될 때까지 5·22 시위 이후 폭풍 전의 고요를 깨리라고 다짐했다. 이미 관악 캠퍼스는 마른 장작이 되고 있음을 느꼈다.

물려받은 전통대로 4학년은 데모하지 않고 첫 불을 당기는 것으로 하여 서클연합 대표 자격으로서 춘승, 찬우, 천우, 3인이 첫 시위를 당기고 뒷 일은 김창우가 계속 불을 지피기로 일을 나누었다.

가을에는 보다 확대하여 73, 74, 75 학번 연합으로 무등산 수련회를 갔는데 당시 참여자들이 향후 1977년 대투쟁 대투옥의 주역이 되었다. 가을 축제 때 1차 거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신변정리 완료에도 불구하고 1976년 감나무골 사건으로 양관수, 전재주와 함께 박찬우가 잡혀 들어가는 바람에 가을 거사는 연기되었다. 나는 내대로 김재명 아가 선배와 함께 황인범 선배의 도움을 받아 공대 김부섭, 이대 홍미영, 그리고 성대 아무개 등과 연대하여 어느 아지트에서 세미나를 가지면서 대학 연합 데모를 꿈꾸었다.

1977년 봄이 되자 오세범은 김재명과 연계되고 김재명은, 나는 물론 춘승이도 함께 거사해야 된다고 설득하였다. 우리끼리 먼저 하기로 얘기가 있었으나 길으로 드러내지 않아 뒤죽박죽이 되던 순간이었다. 그만큼 서로간에 비밀유지가 너무 잘 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국 당초 약속한 대로 우리가 1차로, 김재명, 오세범이 2차로 뛰기로 정리가 되었다. 그렇게 3월 28일 데모는 이루어졌다. 당시 구국선언문은 양춘승이 초안을 잡았다. 핵심은 민족, 민주, 민중이다. 즉 자주 외교와 통일, 유신철폐와 민주화, 일하는 사람들과 민족자본가 및 양심세력이 대접 받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천우와 찬우는 일찍 현장에서 잡히고 춘승이 제발로 걸어들어 올 때까지 춘승이 행방 대라고 고문을 받았고, 날쌔 친구들이 사당동 은신처 내지 아지트에서 등사기 얼른 치워버린 덕에 등사기 찾아내라고 성화네, 난들 아냐? 후배들이 멋대로 치워버린 걸. 후배들은 다음에 쓰려고 감춘 것인가? 웃기는 형사들 그 등사판 내놓으라고 어디 숨겼냐고 춘승의 행방 대라고 권총을 관자놀이에 들이대네, 총알 없는 권총이었겠지만 싸늘한 감촉은 기분이 좋을 리 없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다. 공화당 국회의원이 주는 장학금으로 거사했으니 돈 출처 걱정 없고 공화당 목을 치는 데 사용했으니 아이러니이고 작은 쾌감이 다. 못 먹는 감 찢어나 본다고 형사는 재촉이다. 김대중이나 윤보선이 지금 지원했음에 틀림 없다고 불리는 거지. 아닌 건 아닌 거고 모르는 건 역시 모르는 거다.

유치장 봄날도 봄날이다. 경찰이 찬우 생일을 알아가지고 닭 볶음을 마련해서 먹으란다.

유치장 안에서도 생일 파티는 있었다. 쏘주도 있었다.

관악경찰서 안녕하고 검찰 기소와 동시에 영등포 구치소로 갔다. 서울 구치소나 안양교도소 등에 비하면 영등포 구치소는 신사옥이다. 이파리 세 개 한 분이 얼마나 친절하든지 공범 셋의 근황을 잘도 알려준다. 잡범도 강도도 도둑놈도 살인범도 아닌 긴급조치9호 위반자!

수번 적힌 명찰도 노란색이다. 노란색은 평화의 상징인가? 일반범은 흰색, 반공범은 빨간색, 긴조는 노란 색이었다. 철저한 독방, 소위 사상범이란다. 규칙적인 생활하고 세 끼 밥 꼬박 먹고 이때부터 밥을 오래 씹는 버릇이 생겨 지금까지도 밥 먹는 속도가 너무 느려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무지 미안하다. 7남매 사이에서 일른 먹어야 제몫 챙기던 시절은 가고 고등학교까지 15분 내지 20분에 주파하려고 종종걸음 치던 시절은 가고 여유와 느낌을 즐긴다. 밥은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걸 몸으로 알게 되고 콩밥이 고소한 걸 또 느낀다.

간헐 자에게 신체의 자유란 얼마나 소중한지, 창 밖의 참새도 나비도 잠자리도 한 포기 풀도 그리 부러울 수가 없다. 어쩌다 검찰조사를 받으러 나가 바깥 세상을 볼 때면 어린이가 얼마나 부럽던지, 이삿 보이던지, 도망갈 긴조도 도망갈 사상범도 아닌데 웬 놈의 포승줄은 그리도 긴지, 그때는 그래도 증거주의가 철저했는지 수갑 차고 청계천 상가 앰프 산 곳 현장 검증한다고 갈 때 육교 위를 걸으면서 얼마나 고마워 했던지, 바깥 구경 한번 더 하고 자유의 공기도 마셔보는 것이다. 청계천도 보고 광목 샷던 사당동도 보고 살아 숨쉬는 거리를 본다는 것은 기쁨이었다.

학우를, 동료들, 조직을 대표해서 들어간 것으로 여겨졌는지? 책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고 소식도 전해주는 비둘기도 많았지. 인권 말살기 유신 시대 긴조 위반자들 면회는 가족에 국한했다. 친구들은 영치물을 넣을 수는 있어도 면회는 못했다. 몇 번은 동생 주민증으로 친구가 동생이 되어 면회는 적도 있었다. 그 친구는 지극 정성이었다. 책을 넣어주고 책 속에 소식을 전해주고 부모님 모시고 면회 다니고 공개된 비밀 같은 그것이 첫사랑인 줄을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어느 시인이 말했다. 첫사랑이란 모르는 것이라고, 사랑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더욱 신비한 것이라고. 한참 후에 알게 되고 그때는 이미 추억이 되어 저만치 비껴 서 있는 것이라고.

부모님 여행을 못 시킨 정도가 아니라 영등포, 서대문, 김해, 대구, 안양, 전국 방방곡곡 돌

아다니며 부모님으로 하여금 면회를 다니게 했으니 이런 불효도 없지 싶다. 어머니는 제주 4.3 때 올케가 죽창에 찔려 죽던 모습을 보았던 그 처절한 기억, 그 모진 경험에 아들놈 깜빡 경험이 겹쳐서 그 충격으로 지금도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하신다. 아버지는 더 빨리 늙어 1999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 면회 온 여동생은 울기만 했었다. 또다른 여동생은 우상처럼 여기던 오빠가 그리 되는 바람에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그 둘째 동생은 지금도 정신 질환으로 고생중이다.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감방 안에서는 <경제학사전>, <장길산>, <전환시대의 논리>, <삼국지>, <반야심경>, <님의 침묵>, <임꺽정>, <수호지>, <선으로 가는 길>, <한용운>, <김수영>, <고은>, <양성부>, <조태일>, <백낙청>, 잡독도 많이 했다. 영치 서적 검열도 심했다. 머리 식히느라 <겨울여자>도 읽었지 싶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이었다. 기습시위는 한 장짜리 선언문도 못 읽고 끝났으나 재판은 이중근 검사의 물음이 있고 이택돈 변호사의 물음이 있고 판사의 물음이 있다. 답변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왜 유신헌법은 법이 아닌지, 왜 긴급조치는 철폐되어야 하는지, 그랬다. 데모는 관악캠퍼스가 아니라 법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서클 동료와 후배들이 방청객이었다. 소리치는 환호성도 있었고 소리 없는 함성도 있었다. 그렇게 그들은 1977년 가을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을이 되면서 영등포 구치소로 몰려오는 긴조들, 영등포구치소가 서클 연합 수련회 장소였다. 오며가며 운동하러 나가다 들어오다 만나는 얼굴들은 모두 기쁨이었다.

김재명, 오세범, 정의현, 김창우, 김경택, 권형택, 문성훈, 양기운, 장기영, 김사인, 김태경, 김영현, 이을호, 연성만, 김철수, 성욱, 서동만, 이백만, 양민호, 백삼철, 김관석,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는 친구들이 다 모인 영등포구치소로 왕년의 송추 모임 멤버는 물론 무등산 수련회 멤버가 다 들어온 것이다.

현실 당면 정치투쟁 우선론이, 노동, 농민운동 즉 현장운동 내지 준비론을 밀어부친 것이다. 빵도 나눠먹고 책도 돌려보고 그러면서 1977년 어둠은 깊어가고 꺼지기 전 찬란한 불꽃을 피우듯 철권통치는 악을 더해가고 친구들은 속속 영등포구치소로 왔다.

1977년 겨울 고등법원 판결이 있었다. 1심에서 구형 7년에 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마치 물건값 깎듯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하듯이 인플레가 너무 심하다면서 학생운동 취지를 일부 이해한다면 조연 판사가 형기를 만으로 싹둑 깎는다.

1978년 1월 1일부터 무기한 단식을 결심하는 긴조들! 유신타도! 긴조철폐! 구호로 새 날은 밝았다. 교도소는, 아마도 중정은 사태의 심각성을 누그러뜨리고자 서울구치소로 우리를 이송한다. 일반범들과 함께 수용하는 작전을 편 것이다.

조그만 방이지만 혼자 누리던 고독과 여유는 사라지고 좁은 방에 10여 명이 함께 하는 방에 있으면서 단식을 어떻게 중단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할 일 없고 시간 많은 감방에서는 배고프면 싸움이 잦다.

면회나 와서 누가 돈이나 영치물을 넣고 가면 나눠먹고 희희덕거리지만 배고프면 서로 싸운다. 감방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처음 보았다. 유리 조각을 거울 삼아 망을 보고 뺨끼통에 앉아 깊이 빨고 연기는 손으로 흐트러뜨리고, 밥풀로 정교하게 만든 바둑돌도 보았다.

간수들이 비둘기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고,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쓰던 사람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수도 없이 귀가 아프게 듣는다.

감방 안에도 빈부차가 있어 범털과 개털로 확연히 구분된다.

기왕 일반범들과 함께 했고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 교도행정 민주화를 위해 싸우기로 하고 부식투쟁이 먼저 갔다. 노란딱지 붙은 옷을 빌려 입고 일반 죄수들이 대신 소리친다.

부식비 유용을 중단하라! 일부는 과격하게 외친다. 용도과장 목으로 국 끓여 먹자! 고, 노란 플라스틱 식기도 유용하게 쓰인다. 창살에 긁으면 소리가 대단하다.

1978년 봄 개인적으로는 정말 지옥이었다. 심한 피부병을 앓은 것이다. 저녁 먹고 난 뒤가 제일 가렵다. 미치도록 가렵다. 새로운 징역이었다. 아프지만 앓으면 징역은 징역이 아닌데, 유행 목욕도 많이 했다. 피부병자에게 주어지는 유행 목욕, 잠시 동안은 시원해진다.

유신 말기에 접어든 서대문구치소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바로 옆 방에는 안광이 지배를 철하는 이영희 교수도 있었다. 세상 태어나 그렇게 맑고 빛이 나는 눈을 처음 보았다. 어설플 법학도로서 김철수의 헌법 판례집 읽어가며 형량도 유추해서 알려드렸는데, 이영희 교수 외에도 김지하, 양성우, 장기표, 박석운, 이름을 열거하기엔 종이가 모자랄 정도로 현저동 1번지 서대문구치소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었다.

그 해 3월 1일 삼일절 기념 옥중 시위가 있었다. 유신 타도! 긴조 철폐! 일본 놈 물러가라! 그리고 교도행정 민주화! 모두 부르짖었다. 옥중 그 한마디가 또 다른 재판을 불러 오리라곤 당시엔 상상도 못했다. 전과2범이 된 것은 한참 후였다. (기억하기로는 4.19 기념 시위인데 판결문을 보면 3.1일로 되어 있어 혼란스러우나 3월 1일 4월 19일 두 번 옥중 시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싶다.)

데모꾼들을 데모하는 대로 족족 잡아들이는 데도 학내 시위는 그칠 줄 모르고 관악에서 서울 전역으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데모는 번져갔다.

당황한 정부는 기왕 들어온 놈들을 붙잡아두는 전략을 취하게 된 것이다.

아마 김해 있을 때였나? 중정 아무개가 찾아온다길래 1년6개월 받은 형기를 다 살 필요없이 각서 한 장 쓰고 일찍 나가라고 제안하는 줄 알고 절대 그런 의사 없다고 강변했었는데, 소귀에 경 읽은 셈이지.

1978년 3월 1일 옥중 시위는 며칠씩만 만끽이나 댓가도 컸다. 발길질로 창살을 때리고 소리소리 지르니 교도관들이 달려들고 뒷포승 채우고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을 물어보았는가? 한 마리 말처럼 침을 질질 흘리고 눕지도 못하고 수감에 뒷포승에, 밥먹는 것은 물론 오줌 누기도 고역이었다. 분노하였다. 상상하였다. 기관총을 들고 뜨르륵 다 갈겨 버리는 상상을 하였다. 파쇼의 앞잡이들을 죽이고 유신을 죽이고 긴조를 죽였다. 상상이었다. 꿈이었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고 언론이 국민이 일어나 들불처럼 유신을 죽이리라고 꿈을 꾸었다.

그러나 그 꿈은 1979년 10월 26일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가자 김해교도소로! 영등포에서 서대문을 때에는 단식 뒷끝이었는데 이제 옥중 시위가 빌미가 되어 전국으로 우리는 헤어진다. 그 많던 서대문구치소 깡깡 동맹들이 김해로, 전주로, 대전으로, 전국으로 흩어져간다.

나는 김해교도소로 갔다. 어느날 부산 검찰로 불려 나가고, 옥중 한 마디도 긴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만기 1년6월 지나기 전에 재판이 벌어지고 또 1년을 선고 받았으니, 김해교도소 관할인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던 것이다. 부산대 이상경도 함께 재판을 받았고 동물 사건으로 유명한 동일방직 노동자들과 앞뒤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노동자 측 변호사는 김광일이었다.

박정희 죽기 딱 1년 전인 1978년 10월 26일 1년 추가형을 선고받았다. 전과2범이 된 것이다. 별 두 개.

부산지법 재판에 불복 항소했더니 대구교도소로 이송되고 반감계도 공범 양춘승 박찬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장기표 최열 강기종 김재명도 대구 교도소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사랑이 많고 논리정연한 장기표 선배. 공해와 환경 문제를 그때부터 열변하는 최열 선배, 재소자에 대한 인권 유린은 장기표 형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다.

단식이 끝날 때쯤 다시 이어지는 단식, 그야말로 단식을, 단식투쟁을 밥 먹듯 했다. 단식을 해본 사람은 안다. 처음 일주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소금과 물 만으로 일주일이 지나면 정신은 더 맑아진다.

어릴 적 맛있게 먹었던 떡이나 고기나 음식 등 온갖 것 먹는 꿈 꾸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잠을 깨는 순간이 반복된다. 단식중인데 내가 밥을 먹다니 하고 놀라 깨는 것이다. 깨고 보면 꿈이다. 단식이 일 주일 넘어가면 도리어 힘이 솟는다.

모이면 단식이요 유신 철폐니 대구교도소에서도 진득이 있지 못하고 안양교도소로 이송된다. 일반범은 징역을 사는데 우리는 역도 안 치른다. 방에만 가두어지는 것이다. 나가서 목공 일이든 아무 일이든 노역을 하면 좋으련만, 징역을 안 시키는 징역.

1979년 제헌절 형집행정지로 안양교도소를 나왔다. 2년 4개월은 자유가 박탈된 기간이지만 자유롭다고 느끼며 보냈다.

무궁화호텔, 국립호텔로 불리던 구치소와 교도소! 법학도로서 재판과 징역의 실체를 몸소 체험했음을 고마워해야 할지도 모른다. 법은 권력자의 정의가 아님을 몸소 체험한 것이다.

박정희 죽던 날, 유신이 죽고 김조가 죽던 날, 이태복의 광민사에서 이선근 등과 함께 축배를 마셨다. 김철수와 공동으로 번역했던 영국노동운동사 때문에 광민사에 들렀다가 우연히 뉴스를 들었던 것 같다.

병역대책위원회 활동으로 늦가을 동대문 커피숍에서 처음 지금 집사람을 만났다. 첫 만남의 기억은 그 눈이 한없이 맑다는 것이다. 1979년에 만나 1982년에 결혼을 했다. 그도 고향이 제주도다. 제주하고도 모슬포는 장두의 마을로도 불린다. 조선조 말 이재수 민란의 장두

도, 제주4.3항쟁의 김달삼 장두도 모슬포 출신이다. 처 외삼촌은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자 좌익 의심세력으로 낙인 찍혀 예비검속에 걸려들고 대정 첫알오름에서 집단 희생된 200여명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지금도 백조일손지묘에 묻혀있다. 4.3 진상규명과 대통령 사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외삼촌은 행방을 지금도 묻지 않기로 한다.

처는 나보다 더 현장 활동을 많이 했다. 지금은 전태일의 여동생 전순옥 씨가 운영하는 창신동 참터복지터에서 일하고 있다.

병대위 활동 후 진로는 노동운동이라고, 당시에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고 막노동자보다는 기능공이 유리하다는 논리에 따라 1980년 복학은 하되 영등포 직업훈련원에서 선반공 등록을 했다. 워낙 소질이 없어서 힘만 들고 모양이 나오질 않는다. 전문기관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다. 아버지는 부업으로, 할아버지는 전업으로 목수였다는데, 핏줄은 어디 가고 손재주가 엉망이다.

1980년 서울의 봄에도 불구하고 형사는 계속 따라붙고 답답하기만 하다. 그래도 서울의 봄은 해방공간이었다. 학교를 벗어나보지 못했던 학생 데모대가 길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경험은 기쁨이었다. 그것도 잠시 혹독한 군사통치는 부활하고 또다른 해방공간은 1987년 백타이 부대로 참여할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만 했다.

선반공 기술은 늘지 않고 형사 따돌리려고 당시 선정 그룹에 입사시험을 치른 것이 운명처럼 1982년부터 2003년까지 일반 직장생활을 쪽 하게 되었다.

종합상사, 전 세계 지사를 거느리고 수출에 힘을 다하던 시절, 런던 지사에서 6년 4개월, 88 올림픽 전후 한국이 격동의 세월 보내고 삶의 양식이 급속도로 변하던 시절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시절에, 오래된 것일수록 좋다고 여겨지는 변화가 거의 없는 영국에서 지내면서 소용돌이에서 떨어져 있었다. 1994년 한국으로 돌아왔다.

고교 졸업 후 대학으로, 회사로, 영국으로 돌아다니며 잊어버렸던 고향 제주!

4.3의 질곡을 안고 있는 제주를 다시 찾고 제주사회문제협의회 활동을 하고, 4.3 말만해도 빨갱이로 의심받던 세월, 개인 집에서 숨어서 위령제 지내던 시절이었다. 유족들과 양심세력의 기나긴 기억 투쟁으로, 2000년에는 4.3특별법이 공포되었다. 2008년 10월에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여 국가공권력의 백색테러에 대하여 공식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세상은 많이 변했다. 4.3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청산 투쟁이 빛을 보고 일꾼이었던 현기영 선생은 문예진흥원장이 되고, 고희범 형은 한겨레신문사 사장이 되고 강창일 형은 국회의원이 되는 등 상전벽해가 일어났다.

한편으로 2000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법도 통과되어 음지에 햇살이 돌아왔다. 각자에게 돌아온 건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종이 쪽지 하나뿐이긴 해도 그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명예회복인 것이다. 반체제 불순세력이 민주화운동 공로자로 된 것이다. 이 이름없는 이름은 바뀌어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억압한 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인데?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아니라 민주화 유공자라는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2004년 대한민국 초유의 대통령 탄핵 소추가 있었고 촛불시위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가 인기가요가 되었다. 결국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획득하는 4.15 총선이 있었다.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세력의 퇴조가 있었다. 변화의 물결이 거세지는 것이다. 벽돌 한 장 쌓는 기분으로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고 과거청산에 미약한 힘을 보태고 있다.

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법에서 출발하여 과거사기본법 제정에 국보법 폐지에 벽돌 하나 보탬건만 유신 망령에 법 제정은 해를 넘기고 아직도 불투명하다. 2004년 12월 23일 그리고 12월 31일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될 듯싶던 법안이 공전되는 좌절을 다시 맛 본 것이다. 그러나 절망은 없다. 2005년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60주년 맞아 불만족스럽긴 해도 친일진상규명법이나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은 이미 가동이 되고 있고 과거사기본법도 통과될 것이고 한일 과거청산도 한 획을 그을 것이다. 독도 영유권 침해,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강행, 강제동원 및 군위안부 문제 진실 은폐, 평화헌법 개정 등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을 분쇄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게 될 것이다.

젊음을 간직하고 찬이성, 더운 가슴으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리라.



김태일\_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74학번,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 연구원, 대통령저unk가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 정치학회 이사,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현), 열린우리당 대구시당 위원장(현)

새내기 학생들을 받아서 첫 학기를 보내고 있다. 수험생활에서 벗어난 해방감과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 때문에 아이들의 얼굴은 잘 익은 복숭아처럼 밍글스름하다. 그러나 아이들의 표정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다. 다시 시작되는 경쟁, 암울한 취업 전망, 이런저런 걱정으로 벌써부터 어깨가 축 처진 아이들도 있다. 올해는 축제에도 흥이 적어 보인다.

마냥 발랄해야 할 아이들의 모습이 저러니 선생의 마음도 편할 리 없다. 이럴 때는 선생노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씩씩하게 만들 수 있나? 학창 시절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던 선생님들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우리의 대학 시절도 우울한 날이 더 많았다. 1974년, 환호를 지르며 들어간 대학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유와 낭만이 아니라 끝도 알 수 없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이었다. 유신 체제 하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거리에서' 배워야 했다. 학교는 사흘이 멀다하고 문을 닫았다. 휴교령과 함께 장갑차 빼앗겨 버린 교정을 길 건너 바라보며 우리는 하숙집 골방으로, 선술집 골목으로 돌아가 혀를 깨물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다. 분하여 눈물을 삼켰다.